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7. 28. (토) /총 1매(본문 1)
담당부서 항공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성운, 강경범 사무관, 장여진 주무관 • ☎ (044) 201-4284, 4311, 4293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아시아나 출신이 아시아나 특별점검”보도 관련

□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에 파견된 항공안전감독관 5명 중 3명이 아시아나항공 출신이라 항공사와 **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**

□ 이번 특별점검팀은 **담당 과장이 직접 점검팀장**을 맡고 있고, **일반직 5명(과장 포함), 전문 감독관 5명 등 총 10명**이 점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담당 과장이 점검현장을 직접 총괄하며 **각 점검관이 접촉한 인물, 점검한 내용 등을 매일 점검 전·후 확인**하고 있고,

○ **일반직 1명과 감독관 1~2명을 한 조로 묶어** 점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해 유착 발생 여지를 완전 차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 아시아나항공 출신으로 언급된 감독관 3명 중 **1명은 아시아나항공을 퇴사한 지 19년 이상 경과**되었고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14년간 근무하고 감독관에 입사한 자이며,

○ 나머지 2명은 아시아나항공 퇴사 직전까지 **일선 현장에서만 20년 이상 정비사로 근무**해온 자로써 **현장**에 내재되어 있는 **정비사의 처우, 인원문제 등 어려움** 등을 **가장 잘 알고 있어 점검에** 전략적으로 **활용**하고 있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 (채널A 7.28) >

o 아시아나 출신이 특별점검

- 특별점검에 파견된 감독관 5명중 3명이 아시아나 출신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3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